

올 겨울,
 다 함께
 행복해지는
 우리의 나눔
사랑의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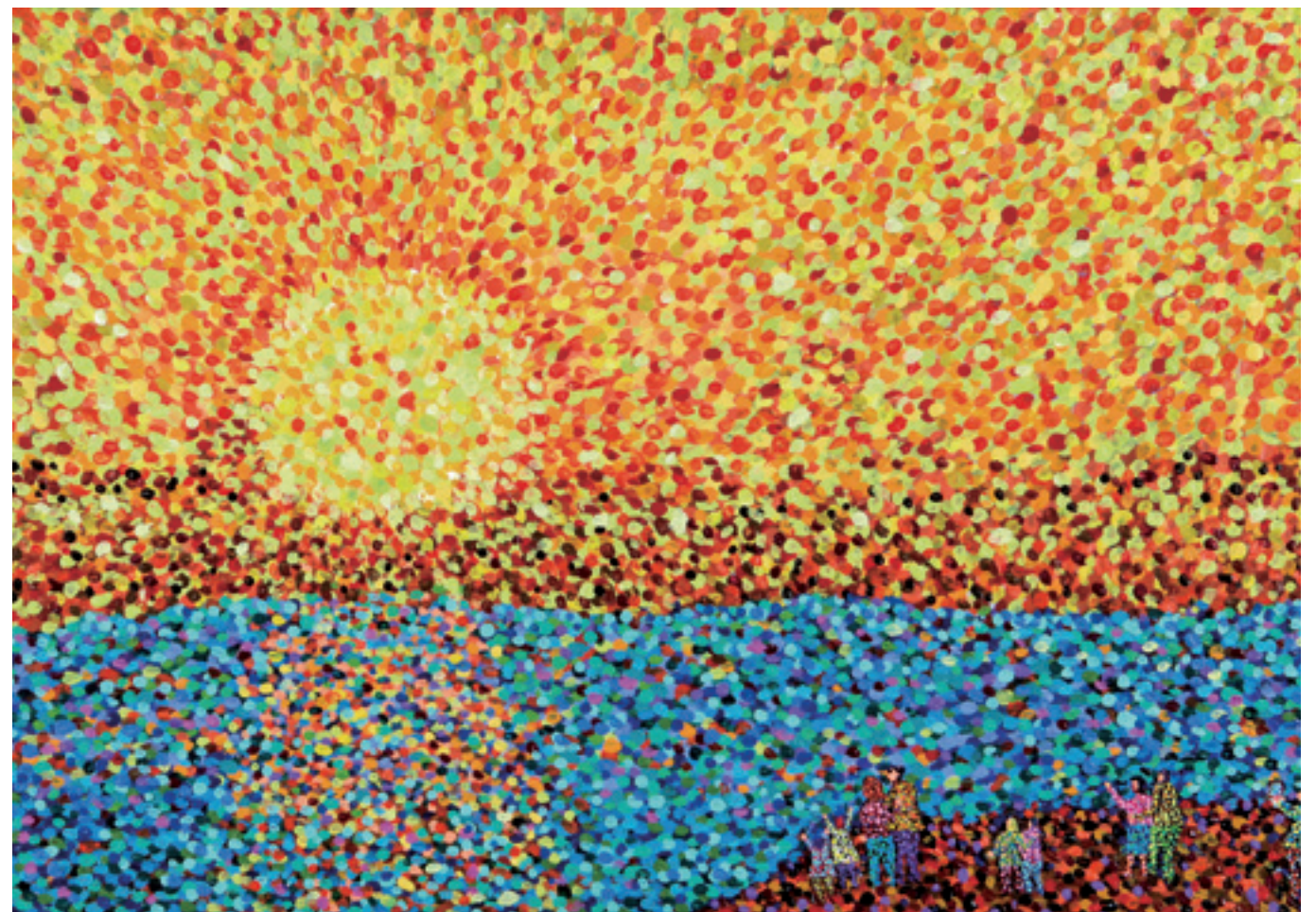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

사랑의열매 연말광고 모델
 산다라박



자세히보기



염인숙, 솟아라 태양야

사랑의열매 

2024
01

사랑의열매 웹진바로가기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



2022년 지원금액

7,334억

2022년 모금액 **7,925억** 자세히 보기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의 94%를
우리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지원대상	OH / OHA 1,578	노년 954	장애 469	OH / OHB 343	OH / OHB 1,852	장애 2,035	OH / OHB 103	
사업분야	기초사업 3,857	OH / OHB 915	OH / OHB 735	OH / OHB 528	OH / OHB 285	사회적기업 659	OH / OHB 210	OH / OHB 145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334억 원으로 전국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사랑의열매 독자 이벤트

귀여운 열매둥이 이모티콘을 드립니다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에 맞춰 사랑의열매에서 귀여운 신입 사원 열매둥이 이모티콘을 선보입니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사원 열매둥이의 좌충우돌 일상을 담은 16종의 이모티콘은 이벤트에 참여한 <사랑의열매> 독자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카카오톡에서 30일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 사원 열매둥이 이벤트 참여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 참여 기간 1월 26일 금요일까지
-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1.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 1 사랑의열매 공식 유튜브(@fruits_of_love) 구독 후, 올라온 영상에 '좋아요' 버튼 1회 이상 누른다.
- 2 '구독'과 '좋아요'가 잘 보이게 캡처한다.
- 3 캡처 화면을 사랑의열매 이메일로 보낸다.

2.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올리기

필수 해시태그 3개(#희망2024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 #기부로나눔가치있게)를 모두 포함해 게시물을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3. 찰칵 사진 찍기

- 1 사랑의온도탑, 희망2024나눔캠페인 포스터·광고, 기부 인증샷 등을 사진으로 찍는다.
- 2 찍은 사진을 사랑의열매 이메일로 보낸다.



04 표지 이야기

소리 없는 아우성,
붓으로 말하는 염인숙 작가

06 희망2024나눔캠페인

- ① 희망나눔캠페인 62일간 대장정 돌입
- ②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 ③ 신개념 기부 팝업 스토어
'가치상점' 오픈

12 나눔 여행

신비한 용의 전설이 깃든 여행지 5

16 매슬랭

(주)좋은아침페스티벌 시그니처점

20 그린 열매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위하여

22 모두의 나눔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28 내 인생의 한마디

나눔명문가(家) 부부 아너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대표변호사·
(주)씨에스건설 황삿별 대표

32 소중한 진심

문인화가 봄날 이상연 작가

34 나눔 이슈

대국민 배분 성과 공유 시리즈 ②
교육·자립 지원

38 착한기업

지역민의 생활을 운택하게 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42 다른 그림 찾기

43 전국 열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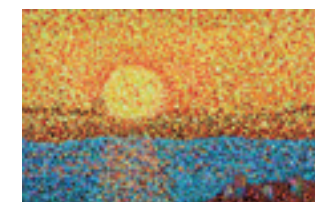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세종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터

58 전국 지회 뉴스

68 나눔 만화

이달의 표지



○ 염인숙 '솟아라 태양아'
53.0×33.4cm
장지에 아크릴

VOL. 201
2024.

01

사랑의열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4년 1월 / 통권 20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빛으로 말하는 염인숙 작가

표지 선정, 큰 영광

겨울비가 내리는 어느 날, 천안시 한 주택가 옥상에 있는 작업실에서 염인숙 작가를 만났다. 옥탑 작업실이지만 유난히 옥상 마당이 너른 곳이었다. 큰 작품을 할 때면 작업 공간으로 변한다. 여기저기 작가가 키우는 화분들도 보인다. 화려한 작업실은 아니지만, 작가에게는 누군가의 입을 보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공간이다.

“다른 무엇보다 새해를 시작하는 1월호 표지작가로 선정돼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큰 기회를 얻은 2024년이 제게도 아주 멋진 한해가 될 것 같아 굉장히 설렙니다.”

작품이 표지에 실린 적은 있지만, 직접 사진을 찍고 인터뷰하는 경험은 처음이라며 무척 떨린다고 말하는 염인숙 작가다. 화가이기 이전에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 삶이지만 <사랑의열매> 표지작가로 선정된 것이 가장 기쁜 일로 기억될 것 같다고 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염인숙 작가는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듣지

“모든 이의 희망이 한껏 솟아나길 바랍니다”

어쩌면 들리지 않은 탓에 그렸는지 모른다. 아니다, 그래서 온전히 들렸는지 모른다. 차마 말하지 못하고, 미처 들지 못한 마음의 소리를 그리는 작가 염인숙이다. 글강은진 사진 김기남

못한다고 어눌한 말투도 아니다. 장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가 장애를 가졌다는 걸 몰랐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귀가 좋지 못했어요. 계속 아팠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심하게 아프고 나서 듣지 못하게 됐죠. 희미하게나마 들리는 한쪽 귀에 의지해 사람들의 입 모양을 읽어가며 애써 이겨낸 것 같아요.”

그림으로 소통해

어려서부터 공부 욕심이 많은 똑똑한 아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한 몸에 잘 들리지 않는 귀, 그리고 딸이란 이유로 대학 공부를 반대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예쁜 아이들을 낳고 잘 살아왔지만 공부에 대한 열망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잘 들지 못하는 염인숙 작가에게 그림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언어가 되어주었다. 취미로나마 평생 그림을 그려온 염인숙 작가는 늦은 나이에 미술대학에 도전해 지금은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1월호 표지작품 ‘솟아라 태양’은 해돋이 순간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색색마다 다양성과 풍요로움, 성장과 발전 등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점 하나 하나에 꼭꼭 눌러 담았다고 할까요.” 염인숙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사랑의열매> 독자들에게도 큰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점묘법은 작가의 시그니처로, 색색의 점마다 의미를 담아낸다. 수많은 작은 점을 모으고 모아 이내 메시지를 완성한다. 아름다운 점들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 바로 염인숙 작가의 진심이다. 조용한 외침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자. 🍀

작가 주요 profile

- 대구예술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 쉬갈갤러리 외 개인전 8회
- 제15회 대한민국 통일문화제 통일부장관상 수상
- 제35회 전국미술대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외 다수
-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 제3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심사위원
- (사)한국문화예술원 한국 회화의 위상전 올해의 작가상

희망나눔캠페인 62일간 대장정 돌입

“희망과 나눔, 사랑이 더 커져 온 세상이 따뜻해지길”

2023년 12월 1일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나눔 여정에 돌입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많은 사랑과 정성이 모여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고 있다. 클이선희 사진김기남



(왼쪽부터)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을 함께한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겸 가수 솔지,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오영석 나눔리더,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겸 배우 정보석



“사랑의열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눔플랫폼으로서 국민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우리의 희망과 나눔, 사랑이 더 커져 온 세상이 따뜻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따뜻한 응원 속에서 힘찬 출발

12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이 진행됐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희망나눔캠페인의 시작을 함께하고자 많은 이가 자리를 빛내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겸 가수 솔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겸 배우 정보석 등이 참석해 캠페인 성공을 기원했다.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이 법인 기부자 대표로, 대구 최초 농민 나눔리더인 대구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오영석 팀장이 개인 기부자 대표로 참석해 힘을 보탤다. 출범식은 KBS 특별 생방송으로 중계돼 25년간 사랑의열매가 실천해온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마음을 모아 올리는 1℃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의 출범 선언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 불을 밝히며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나눔목표액은 4,349억 원으로 1%인 43억 4,9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온도탑 수은주가 1℃씩 올라 100℃를 달성한다. 출범식 날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삼성이 캠페인 1호 기부자로 참여해 이웃사랑 성금 500억 원을 기부했다. 이어 KB금융그룹이 지난해보다 100억 원 증액한 200억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덕분에 출범 즉시 사랑의온도탑 수은주는 16.1℃를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당신의나눔으로
세상은 1℃
더 따뜻해집니다

- 계좌이체 기부 신한은행 080-890-1212 ○ARS 기부 060-700-1212(한 통화 3,000원)
- 문자 기부 #9004(문자 1통 2,000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네이버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기부상담 대표번호 080-890-1212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희망나눔캠페인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 등 주요 부서를 총괄하는 수장들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기부로 만드는 가치있는 대한민국'에 앞장선 그날의 모습을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랑의열매를 비롯한 14개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와 기부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하며 희망나눔캠페인의 나눔 온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이에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과 홍보대사 겸 가수 솔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웃사랑의 상징인 사랑의열매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기부자·홍보대사·단체들을 격려하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사회의 기부·나눔 활성화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도 희망나눔캠페인 성금을 기부했다. 2023년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서 한 총리는 "사랑의열매 같은 민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적시에 잘 닿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희망나눔캠페인에 많은 국민이 가치 있는 기부와 나눔에 동참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등 범국민적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눔을 실천했다. 2023년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기부한 김 의장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 체계에 근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부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과 황인식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시점이라 바쁜 와중에도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전달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연말연시를 맞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사랑의열매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 돕기에 함께했다. 2023년 12월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에게서 빨간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응원을 건네며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했다.



신개념 기부 팝업 스토어
'가치상점' 오픈

“MZ세대 핫플에서 편편(Fun Fun)한 기부를 시작합니다”

사랑의열매가 최초로 진행하는 팝업 스토어 가치상점이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에서
2023년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운영됐다. 이곳에서는 기부 이벤트로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기부 문화를 선보였다. 글강보라 사진홍하얀



(왼쪽부터) 가치상점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김병준 회장, 양호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모습



경품 룰렛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김병준 회장의 모습

가치상점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가치상점은 기부와 팝업 스토어를 합친 신개념 팝업 스토어다. 기부를 통해 나와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슬로건에 착안해 탄생했다. 가치상점이 자리 잡은 종로구 익선동 120번지는 서울에서도 가장 트렌디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주된 방문 계층을 고려해 나눔 인증 포토 부스 A관과 사랑의열매 굿즈 전시관인 B관으로 운영됐다. 포토 부스인 A관은 인생네컷을 '열매네컷'으로 변형해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가수 추와 연말 광고 모델 산다라 박 등과 나눔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포토 부스 수익금은 전액 기부된다. 사랑의열매 굿즈 전시관인 B관에서는 열매둥이 캐릭터를 활용한 그림책, 목베개, 손뜨개 장갑을 비롯해 가치상점에서만 공개된 기모 후드 티 2종, 쿠션, 머그 리드(컵 뚜껑) 등 다양한 물품을 선보였다. 방문객이 현장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면 사랑의열매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동안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에게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하며 '나눔=선물'이라는 경험을 선사하는 기부 체험형 공간으로 사랑 받았다. 가치상점 운영으로 마련한 기부금은 희망2024나눔 캠페인에 기부될 예정이다.

MZ세대의 재미있는 기부 놀이터

가치상점 오픈식에 참여한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일일 나눔산타로 변신해 포토 부스 열매네컷을 촬영하고, 기부 미션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사랑의열매 굿즈를 증정하며 기부 이벤트에 적극 동참했다. 일상 속에서도 즐거운 기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기부 이벤트에 참여한 김슬기 씨는 “자주 찾는 익선동에서 기부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라 놀랍고 신기하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즐겁고 귀여운 이벤트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부 리워드로 볼펜을 받은 우찬 씨 역시 “기발한 이벤트로 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액의 기부에도 선물을 주어 놀랐다”고 말했다. 김병준 회장은 “기부가 거창하게 마음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가치상점의 이벤트처럼 재미있고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기부하는 나눔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가치상점은 기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방향으로 기부 놀이터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나눔=선물'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가치상점이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문을 열기를 바란다. ❀

가치상점에 진열된 사랑의열매 굿즈들



청룡(靑龍)의 해, 신비한 용의 전설이 깃든 여행지 5

용의 포효

제주 용두암

용두암은 제주 관광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한을 가득 품은 용이 몸부림치는 형상을 닮은 용두암은 인근 계곡 용연에 살던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승천하고자 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바위가 되어버린 슬픈 전설을 담고 있다. 승천하게 해준다는 한라산 신령의 옥구슬을 훔쳤다가 신령의 화살을 맞고, 그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울부짖는 형상 그대로 굳어 바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높이가 10m, 바닷속에 잠긴 몸길이가 30m쯤 된다고 하니 괴암을 응시하고 있다면, 정말로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된다. 용두암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서쪽으로 100m쯤 떨어진 곳이 적당하며, 바다가 잔잔한 날보다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 적격이다. 마치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신의 노여움 속에 용이 울부짖으며 바닷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 같기도 하다. 금세라도 포효하며 솟아올를 듯한 용두암은 언제 봐도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다.

📍 제주도 제주시 용두암길 15 ☎ 064-728-3917



용의 머리를 닮은, 제주 용머리해안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육십간지 41번째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는 '푸른 용의해'다. 부귀와 풍요를 의미하는 길조의 상징, 용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신비한 용의 전설을 만날 수 있는 여행지로 떠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한국관광공사



용신이 살고 있는 태백 검용소(儉龍沼)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곳이다. 금대봉 기슭에 있는 제당굴샘과 고목나무샘, 물골의 물구녕 석간수와 예터굴에서 솟아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이곳에서 다시 솟아난다. 1987년 국립지리원에 의해 최장 발원지로 공식 인정되었다. 하루 5,000여 톤씩 용출되는 물은 곧바로 20m 폭포 아래로 떨어져 창죽천을 만들고, 영월의 동강으로 이어지다가 남한강에 이른다. 검용소는 서해의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한강을 거슬러 올라 가장 상류 연못인 이곳에 동지를 틀었다는 전설이 있어 신비감을 더해준다. 지금도 여전히 검용소에서 솟아오른 물살이 석회암을 침식시켜 돌개 구멍을 만들며 암반 위를 용이 기어가듯 흘러내린다.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47-1
☎ 033-560-2379 (고생대국가지질공원)



호국의 용 울산 대왕암

대왕암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울주군 간절곶과 함께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대왕암이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동남단에서 동해 쪽으로 가장 뾰족하게 나온 부분의 끝 지점에 해당하는 대왕암공원은 동해의 길잡이를 하는 울기항로표지소로도 유명하다. 대왕암은 댕바위 혹은 용이 승천하다가 떨어졌다 하여 용추암이라고도 하는데, 신라 문무왕의 호국룡 전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 왕의 뒤를 이어 세상을 떠난 문무대왕비가 남편처럼 동해의 호국룡이 되고자 이 바위로 변해 바다에 잠겼다는 것이다. 불그스레한 바위 색이 짙푸른 바다 색과 대비되어 아주 선명하다. 마주 보이는 대왕암은 하늘로 용솟음치는 용의 모습 그대로다. 대표적 해돋이 명소이기도 하다.

📍 울산시 동구 등대로 95 ☎ 052-209-3738

신묘한 용머리 공주 마곡사

공주 마곡사에 가면 신비로운 용머리 조각품을 만날 수 있다. 마곡사의 중심 법당 중 하나인 보물 제802호 대광보전(大光寶殿)이다. 팔작지붕의 다포 양식으로 지은 이 건물은 앞면 5칸에 세 짝씩 문을 달았는데, 가운데 칸 기둥 위로 용머리를 조각해놓았다. 큰 눈을 부릅뜨고 법당을 지키는 용의 기세가 힘차다. 이곳은 잘 견지 못하는 이가 샅자리를 다 짠 후 걸어 나갔다는 설화가 있다. 특히 대광보전 현판 우측에 있는 용 모양 안초공을 꼭 찾아보자. 다른 용머리와 달리 총천연색으로 장식하고 마치 샅자리처럼 엮여 있다. 이런 용머리는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 샅자리 설화와 결부되어 묘한 감흥을 준다. 견지 못하는 이는 용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 041-841-6220~3



소원 들어주는 삼척 죽서루 용문바위

죽서루(보물)는 관동팔경 중 제1경으로 근처에 유명한 용문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 문무왕이 사후 해릉에 묻혀 호국룡이 되어 동해를 지키다가 삼척의 오십천으로 뛰어올 때 죽서루 옆 바위를 뚫고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바위에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어 용문이라 부르며, 이곳을 드나들며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전해진다. 또 바위 위로는 일곱 구멍의 성혈이 있는데, 7월 칠석날 자정에 부녀자들이 이곳을 찾아 구멍에 좁쌀을 담아놓고 치성을 드린 다음, 그 좁쌀을 한지에 싸서 치마폭에 감추어두면 아들을 낳는다는 특남 기원의 장소이기도 하다. 구렁이가 용으로 승천한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초곡용굴 촛대바위와 함께 둘러보자. 🍀

📍 강원도 삼척시 죽서루길 37 ☎ 033-570-3670



(주)좋은아침페스츄리 시그니처점

맛으로 정성으로, 정말 좋은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비법은
결국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좋은 음식 넘어 좋은
마음이 가득한 곳, (주)좋은아침페스츄리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기분 좋아지는 빵집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 아침이었다.
으스스 떨리는 몸으로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주)좋은아침페스츄리 시그니처점에
도착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탄 세상이
열렸다. 너른 실내를 가득 채운 맛있는 빵과
향긋한 커피,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까지
그야말로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광경이었다. 일순간에 추위가 사라졌다.
동화책 속에 나올 법한 예쁜 빵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빵 하나하나가
어찌나 먹음직스럽고 푸짐하게 담겨 있던지
주인의 후한 인심이 느껴졌다. 게다가
이곳저곳 특별 세일을 알리는 팻말까지
보였다. 이제 막 문을 열었을 시간이라
의아했다. 대부분 빵집 세일은 폐점 시간에

남은 빵을 처리하기 위함이지 않은가.
“저희는 절대로 남은 빵으로 세일 안 합니다.
그건 ‘좋은아침’이라는 이름에 반하는
일이거든요. 빵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맛은
기본이고요, 그냥 여기 오시는 모든 분이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빵, 맛있는 빵이라도
찾지 않으실 겁니다.”

(주)좋은아침페스츄리 최세호 대표는
고객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도 그가
주문하는 것은 하나다. 빵집도 서비스업이니
손님들이 감명을 받아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사실 좋은아침페스츄리 시그니처점에
들어오면서 다른 빵집들과 다른 것이 많았다.
빵집에서 보기 힘든 과일이나 달걀, 지역

“내 이웃들의 좋은 아침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좋은아침페스츄리는 맛있는 빵과 함께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겁니다.”



유명 특산품이 진열돼 있었고, 다른 한편엔 장난감 코너도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모두 고객들의 행복을 위한 최세호 대표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오직 내 이웃을 행복하게

“빵집에 오시는 고객님 80%가 주부세요. 주부님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빵을 찾으시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맛 좋고 질 좋은 먹거리도 찾으시고요. 아, 내가 대신 밭품·손품 팔아서 각 지역의 맛있는 농산품이나 특산품을 제공해드리면 어떨까... 고객님들이 정말 행복해하지 않으실까 싶었죠.”

최세호 대표는 시그니처점을 중심으로 2년 전부터 각종 농산품과 특산품 등을 시즌별로 엄선해 고객들에게 공구 형식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닌, 빵을 사러 오는 주부의 마음을 읽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장에 쌓여 있는 사과며 고구마, 달걀까지 모두 이미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예약 판매가

완료되어 있었다. 빵을 사러 가는 김에 공구 상품도 찾고, 반대로 공구 상품을 가지러 가는 김에 빵도 사는 행복의 선순환이 좋은아침페스츄리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세호 대표를 만났을 때 빵집 대표를 만난 건지, 나눔 전도사를 만난 건지, 좋은 일만 하며 사는 사회의 의인을 만난 건지 헷갈렸다. 오직 고객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는 최세호 대표지만, 사실 매장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건 그 자신이었다. 환한 표정은 평생 쫓겨본 적 없어 보였다. 빵도 구워본 적 없는 경영자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빵으로 진로를 잡고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제빵사다. 대부분 마가린을 사용하던 시절 천연 버터를 사용하고, 페이스트리 전문점을 열며 언제나 제빵업계를 선도해온 최세호 대표다. 건강한 빵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대한민국 동네빵집의 비밀>의 저자이기도 하다.

“중학교 때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빵이었어요. 그래서 제빵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대학 진학 대신 강남의 유명 빵집에 취직해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빵을 구웠습니다. 그 당시 새벽에 출근하는데, 내 빵이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좋은아침’이란 상호를 생각해 봤죠.”

착한가게 넘어 나눔재단까지

나눔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최세호 대표가 아닐까. 강남 유명 베이커리부터 프랑스계 회사 베이커리를



1



2

지나 좋은아침페스츄리를 창업하기까지 빵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2002년 안산에서 처음 자신의 가게를 열자마자 10년 동안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등교하는 학생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빵을 무료로 100개씩 나누어주었다. 빵을 건네는 그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였다. 이런 최세호 대표의 선행은 당시 여러 방송에 소개돼 훈훈한 미담으로 화제를 모았다. “매일같이 빵을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뇌졸중으로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이 계셨어요. 하루는 그분이 품에서 조심스레 네잎 클로버를 꺼내 제게 주시더라고요. 길에서 우연히 찾았는데, 보자마자 제 생각이 나셨다면서요.” 최세호 대표는 여전히 그 네잎 클로버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역시 가게 수익 모두 기부되는 빵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바로 좋은아침페스츄리 2호점이다. “본사 직영점뿐 아니라 다른 체인들도 착한가게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요하지 않아요. 나눔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다만 함께하고 있는 지점들은 커피든 원자재든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세호 대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뜨거운 나눔의 꿈이 있다. 바로 나눔재단이다. 베이커리 브랜드의 나눔재단이 정말 멋지지 않느냐고 말한다. 왜 아니겠는가. 벌써부터 향긋한 나눔의 향기가 진하게 풍긴다. 좋은 아침을 넘어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최세호 대표다. 🍀

1 오직 고객의 행복을 생각하는 최세호 대표
2 군포시에 위치한 시그니처점 내부 전경. 3층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다.

안산에서 시작된 (주)좋은아침페스츄리는 7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진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로 성장했다. 사진은 군포의 좋은아침페스츄리 시그니처점



지구를 살리는 옷장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위하여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적당한 옷을 사고, 손이 가지 않는 옷은 버린다.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면 옷을 사고 버리기를 무한 반복한다. 이렇게 옷을 쉽게 버리고 사는 동안 지구는 병들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지구를 위한 나의 의생활을 고민해야 할 때다.

글 이선희 사진 제공 다시입다연구소 참고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이소연 저, 풀고래), <드레스 윤리학>(리드레스 저, 김지현 옮김, 황소자리), 다시입다연구소



옷을 샀을 뿐인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 폐기물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폐의류 발생량이 약 8만 2,422톤에 달했다. 하루 평균 225톤의 의류 폐기물이 버려지는 셈이다. 버려진 이후도 문제다. 대부분 합성섬유라 매립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지고, 소각하면 온갖 유독 물질이 방출돼 대기를 오염시킨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지구는 병든다. 세계 물 소비량의 20%는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물이 약 7,000L가 필요한데, 이는 한 사람이 9년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옷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온실가스양도 어마어마하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옷장 만들기

덜 사되 더 좋은 걸로 선택 옷을 살 때는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걸로 사는 게 좋다.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구매했다가 한 계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버릴 수 있다. 옷 솔기와 단, 바느질, 마감 상태 등을 살펴보고 내구성을 따져보는 건 필수. 또한 몇 년 후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중고품부터 확인 최근에 중고 물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새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것도 많고, 포장도 뜯지 않은 진짜 새 옷까지 찾을 수 있다. 만약 찾는 상품이 없더라도 알림 설정을 해두면 판매자가 물건을 올렸을 때 바로 알 수 있다.

옷 빌려 입기 옷을 일정 기간 대여해 입을 후 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면접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입을 정장을 대여할 수 있는 ‘열린옷장’, 입지 않는 옷이나 가방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클로젯세어’에서 대여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옷 바꾸기 비영리 스타트업 ‘다시입다연구소’에서는 안 입는 옷을 다른 옷과 일대일로 교환하는 ‘21% 파티’를 선보였다. 21%는 사 놓고 입지 않는 옷의 평균 비율을 의미한다. 즉 옷장 속에 있는 옷을 교환해서 다시 입는 순환 패션이 가능하다.

눈에 보이게 옷 정리하기 내가 어떤 옷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어느 날 내가 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옷을 발견했다면, 일단 옷장 정리가 급선무다. 용도 또는 색상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손이 가는 정도에 따라 정리도 가능하다. 다만 자주 입는 옷이라면 눈에 잘 보이고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게 좋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새해맞이 옷장 정리를 했다면, 지인들과 함께하는 21% 파티

옷장에 짐차고 있는 옷, 이제는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취향이 맞는 지인들과 21% 파티를 열어보면 어떨까. 다시입다연구소의 21% 파티 톨킷을 이용하면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다. 21% 파티 톨킷은 다시입다연구소 공식 홈페이지(wearagain.org)에서 구매 가능하다.

- 1 가져온 아이템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량만큼 옷 태그와 교환 티켓 받기
- 2 굿바이&헬로 옷 태그 작성하기
- 3 작성한 옷 태그와 아이템을 직접 해당 카테고리에 진열하기
- 4 진열된 다른 옷과 패션 아이템 둘러보기
- 5 교환 티켓 수량만큼 아이템을 선택하고, 티켓을 파티 진행자에게 내면 끝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코로나19로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사는 곳으로 옮겨졌다. 동네가 삶의 중심이 되고 이웃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소외 계층은 이런 흐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클이선희 사진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미세스손그림



인제군 복지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동네 복지관 구축 사업 동네방네이음 프로젝트 선한동지

▶ 인제군사회복지관은 강원 인제군 내 유일한 복지관이다. 지역 특성상 복지관할 구역은 넓고, 인구밀도는 낮아 6개 읍면 중 서화면 등 3곳은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인제군사회복지관은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서화면에 거점 복지관을 구축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한동지'를 3년째 운영 중이다. 1차 연도에는 서화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복지관 접근성과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면, 2차 연도에는 지역 내 활동가를 양성해 주체적인 복지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3차 연도인 올해는 사업 종결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성된 활동가를 주축으로 복지사업 및 서비스를 전달하며, 지역 안에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



1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엄마 나 놀다갈게' 2 2022년에 진행한 어버이날 행사
3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장난감 학교 놀이'

MINI INTERVIEW



인제군사회복지관 남윤지 팀장

Q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제군 서화면의 인구는 중장년과 어르신 위주의 원주민과 군인 가족(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화면은 복지와 교육 문화 소외지역인 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대상과 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을 고려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 **사업 진행 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지역의 욕구 또는 지역 내 복지 결핍을 충분히 반영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누릴 수 없던 복지 결핍을 채우는 동시에 서화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Q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제군 서화면은 사실상 복지 포기 상태였습니다.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서화면 주민은 물론 인제군민들에게도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모두에게 복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다는 신뢰감도 높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이웃의 재발견, 양주 당근이(당신 근처의 이웃)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경기 양주시는 도농 지역 고령화가 심해지고, 신도시 건설에 따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에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양주 당근이' 사업을 진행했다. 당근이란 '당신 근처의 이웃'의 줄임말로, 우리 근처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는 뜻이자 위기 가구에는 도와줄 이웃이 근처에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양주시민 등 130명이 양주 당근이로 활동하며 위기 가구를 잘 빠르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외에도 위기 가구 발굴단 역량 강화 교육, 복지 사각지대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개인, 조직,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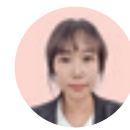


1 2023년 3월에 진행한 양주 당근이 발대식 2 이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양주 당근이



위기 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인식 개선을 위해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MINI INTERVIEW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주영 담당

- Q **사업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양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은 양주 당근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생긴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양주 당근이에게 알리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양주 당근이가 위기 가구를 발굴해 주거 환경 개선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위기 가구 발굴단으로 활동하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의 역할과 활동 지침, 실천 매뉴얼 등을 교육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했다는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 Q **왜 위기 가구 발굴단에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한 결과 위원들이 위기 이웃을 만났을 때 행동 요령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방법 등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었어요. 이번 5회기 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교육 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 Q **사업 진행 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복지 사각지대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두고 살펴본다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가 촘촘한 복지 안전망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양주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 당근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 Q **사랑의 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랑의 열매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양주 당근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 위기 가구 발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중단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미있는 예술 마을 만들기 마을, 예술로 그린다



▶ 충북 당진의 읍내2동은 당진시 중심인 읍내동에 위치하지만, 아파트 개발 중단 여파로 부지 내 빈집 수 채가 18년째 방치되고 있다. 범죄와 탈선의 장소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읍내2동 전체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은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류재훈 예술가와 함께 도시 환경에 개성과 매력을 더해주는 공공 예술 사업을 진행했다. 주민들이 그림을 그리며 예술을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마을을 꾸미는 데 직접 참여했다. 또한 마을 축제, 우리 동네 골목 영화관을 열어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주민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도시 재생을 주도하며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되고자 했다.

1 직접 벽화를 그리며 마을을 꾸미는 주민들 2 주민들의 작품을 마을 곳곳에 배치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작업해 탄생한 벽화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마을 주민들

MINI INTERVIEW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이재욱 담당

- Q **사업 성과를 꼽는다면요?** 이전에는 폐허가 있고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술가(류재훈 기획자)와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민들이 예술을 경험하고, 직접 폐허를 새로운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이후 주민들에게 마을은 화사하고 편안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마을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뜻밖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 Q **도시 재생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공공 예술 활동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허에 있는 건물들은 언젠가 무너지거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전문적인 예술 작품을 찾기보다 주민들의 손길이 담겨 그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언젠가 사라지거나 변형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공공 예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Q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술적 경험을 통해 개인적 일상이 달라졌다는 분도 있고, 공공 예술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다는 분도 있습니다. 한 참여자분이 "그림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만나는 사람들이 저더러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해요"라고 말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공공 예술 활동에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 Q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건강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행복한 개인이 많아지면 행복한 마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주민들은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 일을 이루며 나눔과 연대의 힘을 배웠습니다. 🍀

“온기를 담은 나눔으로 이웃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률가인 남편과 건설 회사 대표인 아내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서로를 '기부 초심자 단계'라고 정의하지만, 함께 그리는 기부 청사진은 만만치 않은 내공을 자랑한다. 글강보라 사진김기남

장지호·황셋별 아너는 나눔명문가의 일원이다. 부산 사랑의열매는 가족 구성원 중 3명이상이 아니로 가입하는 경우 나눔명문가로 추대한다. 황셋별 아너의 아버지 (주)디알종합건설 황의순 회장(부산 230호)의 가입을 시작으로 아내 (주)에이치디알 김미향 대표(부산 330호)와 둘째 (주)디알종합건설 황치연 이사(부산 331호), 첫째 (주)씨에스건설 황셋별 대표 이사(부산 332호), 사위인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대표변호사(부산 333호)까지 5명의 가족이 아니로 이름을 올렸다. “가족 행사에서도 나눔으로 대화를 이어가곤 한다”는 말처럼 이들에게 나눔은 공통의 주제이며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아너가입으로 시작된 새로운 나눔 세계

부부를 나눔의 세계로 이끈 것은 황의순 아너였다. 장지호 변호사는 장인의 아너 가입 권유에 생소한 느낌까지 받았단다. 나눔이나 기부는 빌 게이츠처럼 대단한 기업가나 재력가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아너 가입을 통해 작성한 케이스입니다.(웃음) 아너가 되어 아버님과 함께 KNN(부

산·경남 민영방송)에서 나눔캠페인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대사가 ‘문화 나눔, 재능 기부, 지속적인 후원’이었죠. 그때 ‘재능 기부’라는 말에 꽂혀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 장지호 변호사

부산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든든은 회생·파산, 형사, 민사, 기업 법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지호 변호사는 그중에서도 개인 회생과 파산을 전문으로 담당하기에 지역 서민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기업도 어렵지만,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취약 계층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 장지호 변호사

장지호 변호사는 일반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와 지식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유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법률 정보와 상식을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쉽고 편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의뢰 사례를 바탕으로 취약 계층의

구제 방안을 공공 기관에 제안했고, 진행되는 대로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장 변호사는 그동안 ‘사업 규모를 키우는 일’에 골몰했다면 이제는 ‘사회에서 의미를 찾는 일’로 업무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나눔명문가로 이끈 기부 효능감

장지호·황셋별 아너는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작동하는 근간에 ‘기부’가 있다고 믿는다. 나눔의 손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에 기꺼이 발 벗고 나서는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님을 보면 존경스럽죠.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이웃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 황셋별 대표

장지호 변호사와 황셋별 대표는 아너 가입으로 나눔의 출발선에 섰다고 말한다.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가(家) 부부 아너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대표변호사·(주)씨에스건설 황셋별 대표

두 사람은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가의
일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겠다고 약속했다.



“40년 넘게 지역사회 기부에 앞장서고 있는 (주)YC-TEC 회장인 박수관 아너님도 누적 기부 금액이 몇백억 단위라고 들었는데요,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실행력과 꾸준함에 큰 감명을 받았죠.”-장지호 변호사

아너 회원들을 통해 기부 효능감을 느낀 부부는 나눔 필요성을 절감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장지호·황셋별표 나눔’을 고민하게 되었다. 구시가지가 혼재되어 재개발·재건축 정비가 필수인 부산 지역에서 부부만의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든든이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주요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대표로 있는 씨에스건설이 주거용 건물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죠. 둘이 손잡으면 취약 계층 보급자리 마련에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지호 변호사

부부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상상과 계획에 스스로 깜짝 놀라기도 한다. 이것이 선배 아너들이 말하던 ‘나눠주고도 즐거운 나눔의 세계’라고 짐작해볼 뿐이다.

“저희 부부의 나눔 롤모델은 아버님인 황의순 아너이십니다. 수많은 고난에도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사업을 일궈오셨고, ‘나눔이 가장 즐겁고 합리적인 소비’라는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신 분이니까요.”-장지호 변호사

아름다운 나눔 부가가치세를 꿈꾸다

사업가인 황셋별 대표는 지속적인 후원을 강조한다. 또한 지속적인 후원 약속이 사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일단 사업이 잘되어야 후원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게 되죠.(웃음) 저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부 금액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몫을 따로 설정한 것이죠. 일종의 ‘나눔 부가가치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봉사료나

세금처럼 전 국민이 일정 퍼센트의 나눔 부가가치세를 내면 어떨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황셋별 대표

황셋별 대표의 말처럼 지속적 후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후원 사업을 가능케 한다. 이런 후원층이 두꺼울수록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더 단단한 성장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장지호 변호사는 아너의 일원이 되면서 사랑의열매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아너로 가입하며 사랑의열매라는 기관을 면면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재정의 투명성은 물론 사업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배분의 디테일을 보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눠주는 것만 연구하면서 사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느꼈을 정도죠.(웃음)-장지호 변호사

황셋별 대표는 후원자로서 특별히 고마운 마음도 전한다.

“과거에 연탄 배달도 해보고, 반찬 나눔 같은 것도 해봤죠. 홀몸 노인 가정에 들러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요, 직접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이 서툰 경우에는 후원으로 힘을 보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랑

법무법인 든든에 진열된 장지호 변호사의 아너 인증패 모습. 인증패를 볼 때마다 ‘어려운 이웃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지곤 한다.



의열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황셋별 대표

달의 뒷면까지 살피겠다는 두 아너의 약속

장지호·황셋별 아너는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이들의 약속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다. 그들 역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지금의 자리에 섰기 때문이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1세대 게이머로 활약한 장 변호사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게임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다. 황셋별 아너 역시 건설업의 경기 부침을 온몸으로 겪으며 지난 세월을 견뎌왔다.

“처음에 셋별이를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잣집 딸내미라고 생각했어요.(웃음) 그런데 채권자에게 시달려보기도 하고 세상 풍파를 겪어내며 누구보다 단단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저 역시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있는 심정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요. 어려움을 먼저 겪은 선배로서 과거의 나에게 손을 내미는 심정으로 이웃들을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장지호 변호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설립한 것이 법무법인 든든이기도 하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장지호·황셋별 아너는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달의 뒷면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살아온 이력이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보루가 되고 싶다는 장지호·황셋별 아너의 바람이 부산 지역에서 오롯이 실현되기를 바라본다. 🌸

인천 대표 막걸리 '소성주' 글씨체 기부한
문인화가 봄날 이상연 작가

“나눔은 제가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작품에 담은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봄날 이상연 작가.

글강은진 사진작가제공, 인천사랑의열매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문인화가 봄날 이상연 작가

인천탁주와 함께한 이웃사랑

작가와 브랜드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문인화가 봄날 이상연 작가와 인천탁주의 이야기다. 지난해 5월, 이상연 작가는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 '소성주' 서체 작업을 진행하고, 작품 개런티 전액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소성주는 인천을 상징하는 술이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의 콜라보는 처음이에요. 인천탁주 정규성 대표님이 라벨 서체 작업을 제안하셨을 때 그래서 많이 망설

였죠. 거절할 생각도 했어요.(웃음)”

이상연 작가는 인천탁주 정규성 대표가 오랫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불리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한 달여 가까이 고민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소성주를 마시고 잠든 노숙자를 보았다.

“왜인지 그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오랫동안 인천 시민들과 함께해온 술이 짝아요. 어떤 이에겐 배고픔도 달래주고요. 그렇게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와 함께하는 일도 작가로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연 작가는 작업을 수락하면서 서체 개런티에 대해 일절 묻지 않았다. 기부를 먼저 제안한 것도 이상연 작가였다. 그렇게 이상연 작가와 인천탁주의 기부 콜라보가 탄생했다.

예술의따뜻한 힘 보여줄 터

이상연 작가는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인물이다. 봄날은 그의 스승이 지

어준 호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후, 결혼과 육아로 15년간 그림을 떠나 있다 나이 마흔에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리고 인천 출신 화가로는 처음으로 2013년 '제11회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종합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5년 '인천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대상, 2018년 '제3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대상을 연달아 수상하면서 이른바 유명 작가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작가의 시선은 언제나 이웃을 향해 있다.

“어머니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웠어요. 언제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고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왜'라는 의문도 없이 작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눔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상연 작가의 어머니는 인천 사랑의열매 초대 W아너 소사이터티 클럽 회장을 역임한 동양주택과 하림코리아 푸드 임남례 대표다. 이상연 작가는 현재 기부 전시회를 통해 어머니 못지않은 나눔을 실천하는 중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걷고 있는 나눔의 길을 기꺼이 뒤이어 걸을 생각이다.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를 보듬고자 하는 이 시대의 참작가, 봄날 이상연이다. 🌻



태양을 향하는 황금빛 해바라기는 이상연 작가의 주된 소재 중 하나다.



서체 개런티 기부금 전달식. (왼쪽부터)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이항숙 전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상연 작가, 인천탁주 정규성 대표

대국민 배분 성과 공유 시리즈 ②
교육·자립 지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리의 홀로서기

우리는 때가 되면 홀로서기를 한다. 세상에 한 발짝 내디딜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는다. 그럼에도 무한한 지지를 보내며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있어 그 과정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 사랑의열매 또한 그런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우리 이웃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대국민 배분 성과 공유 시리즈 두 번째를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여성 보호시설 입·퇴소 여성, 다문화·미혼모·한부모 가정 등 이른바 특수 취약 계층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 욕구가 높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엔 여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이에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에선 제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취약 계층 여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사업단을 만들어 직접 채용하고 창업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러한 봄날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교육비 지원 사업과 공예 취·창업 지원 사업, 푸드사업단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

55명 중 31명 취업 성공

사회복지사, 상담사, 요양보호사, 미용사, 바리스타, 제빵사 등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특기 적성을 살려 직접 교육 설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수업료, 재료비, 자격시험 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등 직업교육 제반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취약 계층 여성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봄날

○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기간 2020년 12월 29일~2023년 12월 28일



1



2

공예 취·창업 지원 사업

33명 중 14명이 강사 및 셀러 활동과 협동조합 창업 활동

‘교육 → 생산 → 판매’의 기본 구조를 갖추기 위해 공예 교육장과 매장을 마련해 연간 100회 이상 교육 체험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공간을 바탕으로 초급부터 전문 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예 분야의 자격 취득과 공예 창업 인큐베이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여 명의 공예 전문 강사를 배출했으며, 공예 참여자들의 활동처를 개발하기 위해 제주시 원도심에 플라마켓을 열고,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공예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3

푸드사업단

취약 계층 여성 15명 정규직 고용 및 경과적 일자리 제공

식품 분야 취업을 원하는 참여자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2차 연도 사업부터는 푸드사업단을 구성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식품 조리 교육을 하고, 식품 조리 시설인 ‘동네부엌’을 설립해 직접 고용을 진행했다. 동네부엌은 영업 1년 만에 1일 500인분의 도시락을 생산·판매하며 이제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익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4

- 1 봄날의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2 패션 교육 수업을 듣고 있는 참여자들
- 3 공예 취·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가 만든 공예품
- 4 참여자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설립한 동네부엌

MINI INTERVIEW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고호진 소장



기존 여성 자립 지원 사업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육에 필요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사업과 취업 전문 기관과 연계한 구직 상담, 2개의 사업단을 통한 직접 고용 시도,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취약 계층 여성의 자립을 목표로 진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2개의 사업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봄날 사업의 의미를 정리해주신다면요?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보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취약 계층 여성이라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도전하지 못한 자격 취득에 도전하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한 점은 다른 사업에서 찾을 수 없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참여자에게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과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희망을 주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봄날 사업은 사랑의열매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만,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제공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삼성희망디딤돌

○ 전국 희망디딤돌센터 12개소: 부산, 대구, 강원, 광주, 경남, 충남, 전북, 경기, 경북, 전남, 대전·충북(2024년 개소 예정)



1



2

1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는 요리 교육
2 청년들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유대감을 형성한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 만 18세를 맞은 청년들은 1,000~1,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받고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홀로 자립을 시작한다. 매년 전국에서 약 2,600명이 시설에서 퇴소하는데, 이후 상당수는 열악한 주거 환경, 생계 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겪는다. 심각한 경우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며 고립 상황에 놓인다. 이에 삼성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희망디딤돌 사업을 진행하며 자립준비청년이 충분히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자립준비 프로그램

만 15세 이상 연장 및 보호아동

만 15세 이상 연장 및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일상생활, 경제, 진로, 부동산 임대차, 대인 관계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보호 체계에서 받던 교육과 차별성을 두어 소규모 그룹 형태나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효과성을 높였다.

자립체험 프로그램

만 15세 이상 연장 및 보호아동

만 15세 이상 연장 및 보호아동이 1인실 체험관에 숙박하며 독립 주거 생활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총 6개 자립영역(주거 생활, 웰빙 생활, 인간관계, 여가 활동, 재정 관리, 미래 설계)에 맞춰 최소 1박 2일에서 최대 6개월 장기 체험까지 가능해 실제 자립 생활과 거의 흡사한 체험이 가능하다.

자립생활 프로그램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2년간 1인 1실의 원룸형 주거공간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자립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별 역량에 맞춘 일대일 맞춤형 사례 관리 프로그램(요리, 재정, 금융, 취업정보 등)으로 자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MINI INTERVIEW

희망디딤돌 경남센터
김성민 센터장



○ **희망디딤돌 경남센터에는** 현재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곧 3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센터에 입주한 청년들은 장·단기 자립 목표를 세우고 담당 사례관리사·직업상담사와 함께 자립을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희망디딤돌 경남센터 이후의 삶을 고민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자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후 삶이 안정적인 자립 생활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를 이룬 부분이 있다면요? 희망디딤돌 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기존 자립 지원 사업의 집약체로서 주거 지원부터 상담, 자립 교육, 진로 코칭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또 옆에서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봅니다.

보호종료아동·청소년에게 희망디딤돌 센터는 어떤 의미인가요? 두렵고 막막한 자립이라는 미래를 함께할 손전등 같은 곳이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전숙영 센터장



○ **희망디딤돌 전북센터에는** 현재 18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입주해 담당 사례 관리사와 함께 자립 계획을 수립한 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로에 필요한 전문교육 과정뿐 아니라 홀로서기에 꼭 필요한 경제·노무·요리 교육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그 외에도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받아 학업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청년들이 온전하게 자립하기 전 희망디딤돌 센터에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는 진로와 취업, 일상생활 기술 등의 과정도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도 포함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사람과 소통·교류하는 훈련이 될 수 있기에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디딤돌 사업의 차별성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희망디딤돌 사업은 분절되어 있던 자립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 자립 전 준비 단계부터 자립 후 지원 과정까지 아우르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 등 각 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청소년 희망디딤돌 센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보호아동과 청년들은 희망디딤돌 센터를 줄여서 '희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희망디딤돌 센터가 우리 대상자에게 친숙하고 친근한 존재인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지원하는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

지역민의 생활을 운택하게 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친환경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우리나라 전력의 3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발전 회사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전력 생산에 임하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글강보라 사진(주)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1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지역민의 생활을 개선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월성본부의 지원으로 MRI 촬영을 하는 지역 주민의 검진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이하 월성본부)는 사회 공헌 및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로 사랑의열매가 주관하는 나눔명문기업 2022년 경북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3억 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저소득 가정 대상 복지사업, 월성가족봉사대 결연 활동, 지역 아동 대상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임금 반납분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마을 방역 지원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 지역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수식은 월성본부의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라 더욱 빛난다.

100세 시대를 위한 지역 주민 건강검진 지원

동경주 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은 월성본부가 경북 사랑의열매와 함께 진행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특별 검진, 즉 MRI와 CT 촬영,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해 건강에 이상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준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돼 2023년까지 지역 주민 1만 5,630명이 혜택을 받았다. 편안한 검진을 위한 버스 지원부터 협약 병원의 검진까지 눈스톱으로 진행된다. 기초 검사 후 간호사의 문진에 이어서 시력, 청력, 혈압, 혈액, 구강 검사를 마친 주민들은 개인 상태에 따라 MRI, CT, 골밀도,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간호사가 일대일로 담당해 부축하며 절차대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감포읍 감포2리 김명섭(70) 씨는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고생을 했는데, MRI 검진 덕분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가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왔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 정밀 검사를 소홀히 했는데, 월성본부의 지원으로 꼼꼼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김 씨의 부인 한금화(65) 씨 역시 대장내시경을 통해 6개의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까지 마쳤다. 이처럼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 중대 질환과 징후를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는 의료비 일부가 지원되어 더없이 고마운 혜택이 된다. 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은 월성본부의 지역 공헌 활동 가운데 가장 효용성이 높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경주 지역주민 건강검진사업 협약식 모습. 지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사랑의 집수리

☞ 월성본부의 사회 공헌은 지역 밀착·생활 공감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인 '망치와 벽돌' 프로젝트가 단연 눈길을 끈다. 집수리 사업은 동경주 지역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월성본부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망치와 벽돌'은 망치를 치는 강한 추진력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정성 어린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내 공모를 통해 결정된 사업명이다. 투박하지만 사랑의 집수리를 뜻하는 강인한 로고를 통해 지속적인 집수리 사업을 표명했다. 실제 월성원자력 인근 지역은 농·산·어촌 복합 지역으로 대부분 홀몸 어르신, 저소득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 환경 개선에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관 수리, 수세식 화장실 설치, 보일러와 도배장판 교체 등을 기본으로 거주자의 주거 생활 개선에 근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체장애 1급 아들을 돌보고 있는 A 가정의 경우 장애를 가진 아들이 손쉽게 드나들고, 실내에서도 햇살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만들어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 가옥으로 바뀌는 식이다. 매년 동경주 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형편이 어려운 세대를 추천받아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2023년에도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각각 2가구씩 총 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최근에는 거주자의 요구 사항 반영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 개선에 중점을 두어 친환경·고효율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내일의 꿈을 선물하는 청소년 지원

☞ 월성본부는 내일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 졸업 시즌을 맞아 주변 지역인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 소재 학교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주변 지역에 3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나 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의 신청을 받아(최종 245명 신청) 1인당 100만~120만 원씩 총 2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동경주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톰공학교실'도 진행한다. 아톰공학교실은 다양한 과학 실험과 실습을 통해 기초과학 원리를 배우는 수업으로, 어린이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일깨워 미래의 과학 인재를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월성본부의 대표적 인재 육성 사회 공헌 사업이다. 월성본부 직원들이 일일교사가 되어 교통안전을 위한 공학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경사각 센서를 이용해 잠들 때

1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월성본부 임직원 모습
2 월성본부는 사회 공헌 및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로 나눔명문기업 인증패를 받았다.



1



2



3



4



3 월성본부 임직원은 직접 밑반찬 꾸러미를 전하며 지역민의 근황을 살핀다. 4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성을 일깨워주는 아톰공학교실은 동경주 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개가 숙여지면 부저가 울리는 줄음 방지 안경을 조립하는 등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월성본부의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하는 월성가족봉사대는 장애 아동 보육 시설인 아이꿈터어린이집 가족들과 결연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7년 발족한 월성가족봉사대는 회원 한 가족당 장애 아동 1인을 매치해 지원·후원하는 활동을 펼치며, 그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체험 학습·캠프·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며 아동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상담도 한다. 매월 문화 체험, 야외 활동,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문화 소외를 겪는 장애 아동들의 경험 폭을 넓히고 장애 인식 개선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연 아동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색 체험을 하면서 성장한다. 월성가족봉사대 발족 당시부터 지금까지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선일 단장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에서 항상 달레마로 작용하는 '봉사 활동의 진정성'을 풀어나가려는 고민에서 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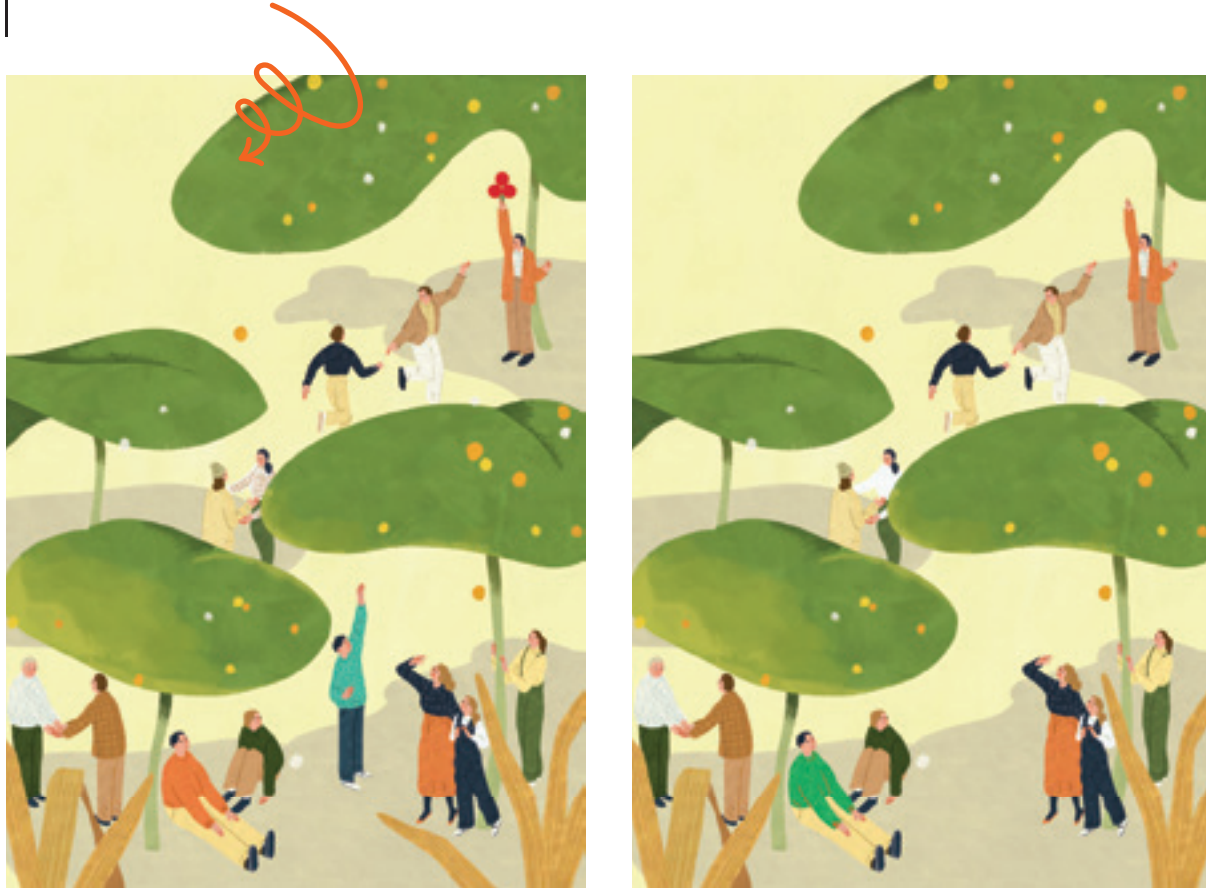
지역민의 안부를 챙기는 생활 밀착 지원

☞ 사업 공헌 사업의 디테일은 지역민의 생활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월성본부의 밑반찬 꾸러미와 탕 목욕 봉사 활동은 지역 주민의 안부를 챙기고, 생활 편의를 돕는 실용 만점 사업이다. 밑반찬 꾸러미는 매달 한 번씩 밑반찬을 구성해 꾸러미로 만들어 동경주 3개 읍·면(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의 지역민에게 전하는 사회 공헌 사업이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계절에 맞는 밑반찬을 구성해 꾸러미로 만들면 월성본부 직원들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단순한 반찬 배달을 넘어 한 달에 한 번 안부와 건강을 챙기는 감성 만남이다. “때가 되면 찾아주는 봉사자들이 기다려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든든하다”는 홀몸 어르신의 말이 이들의 만남을 증명한다. 또한 인근 지역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탕 목욕 봉사 활동도 한다. 따뜻한 탕 속에 몸을 담그는 어른들의 문화를 이해한 사업이다.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탕 목욕에 동행하고, 월성본부의 누키봉사대가 목욕 후 중식 제공과 이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매월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들께 선물을 제공하는 등 지역민 맞춤형 봉사 활동을 전개해 지역 어르신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월 동경주 3개 읍·면 지역(양남면, 양북면, 감포읍)별로 1회씩 총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정기 모금인 러브펀드를 통해 탕 목욕 행사를 후원한다. 월성본부의 사회 공헌은 지역민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며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활동들이 멈추지 않는 무한 에너지로 지역민들의 삶에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바라본다. ♡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봄날의 햇살 같은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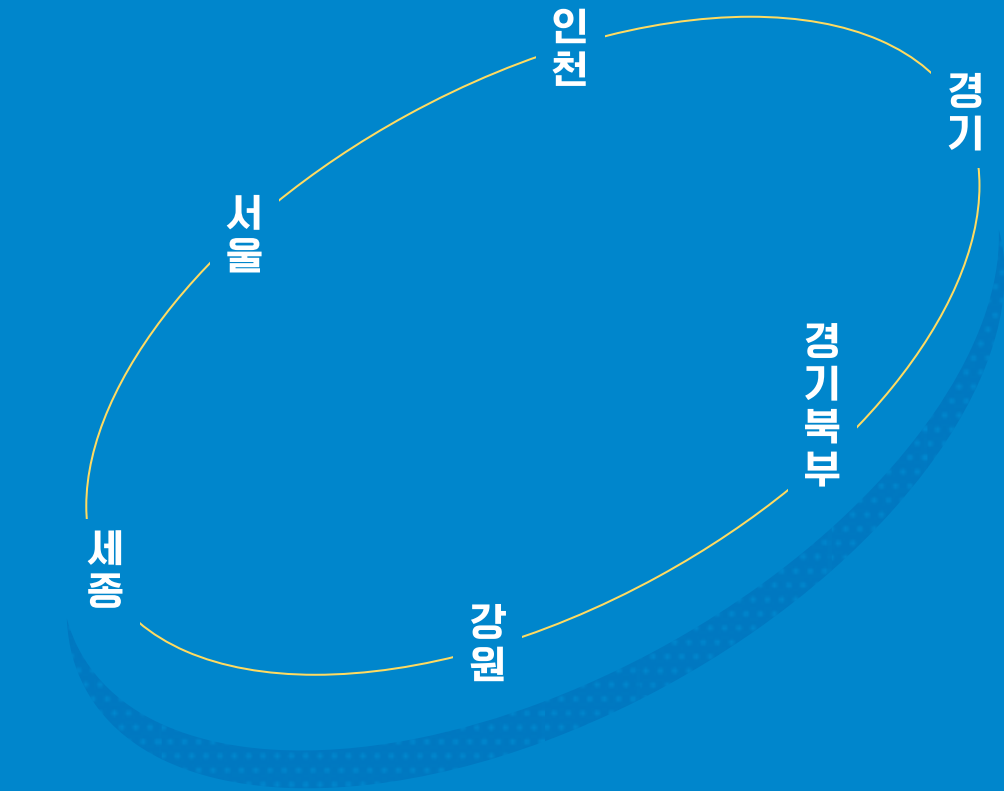
전국이 꽁꽁 얼어버릴 것처럼 겨울 추위가 매섭다. 이렇게 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 사랑의열매는 이웃들에게 온기를 나눠줄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이들이 함께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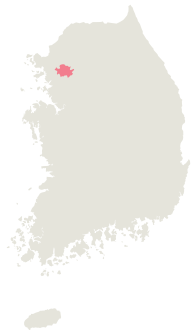


다른 부분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사랑의 연탄 나눔부터 나눔 봉사 투어까지... 현장 누빈 기부자들 “추운 겨울, 봉사로 따뜻하게 만듭니다”

서울 사랑의열매의 12월은 기부와 봉사로 채워졌다.
서울 아너 클럽 회원들과 홍보대사, 그리고 와디즈 플랫폼과 함께한 나눔 봉사 투어까지
현장으로 직접 달려간 기부자들의 소식이 훈훈하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과 홍보대사 현영, 카피추가 함께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현장

이제 나눔도 펀딩!

서울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진행해 추운 겨울을 한껏 달궜다. 특히 나눔 펀딩이라는 새로운 콘셉트가 큰 화제였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와 손잡고 나눔 봉사 투어 '밥퍼+빵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부와 봉사를 멀고 어렵게만 느끼던 참여자들은 펀딩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기부도 하고 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부자들은 모두 15명으로, 이들은 2023년 12월 2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배식 봉사를 했다. 이어 성동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자리를 옮겨 어려운 이웃을 위한 빵 만들기 봉사에도 참여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봉사였음에도 참여자들은 지친 기색 없이 맡은 일을 완수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기부자는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누군가를 위해 몸을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더 따뜻해졌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 살펴보면 나눔을 이어가겠다.”

-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주)매크로 통상 예승유 대표



펀딩을 통해 나눔 봉사 투어 '밥퍼+빵퍼 프로젝트' 참여 중인 기부자들

연탄 나른 아너 회원들

고액 기부자들도 겨울 봉사에 나섰다. 2023년 12월 8일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 13명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자 홍보대사인 방송인 현영과 개그맨 카피추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구룡마을은 차량으로 연탄을 배달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나 있어 나눔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봉사에 참여한 기부자들은 직접 연탄을 나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연탄 지원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기부금으로 조성돼 특히 의미가 컸다.



(왼쪽부터) 홍보대사 & 아너 소사이어티 현영,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예승유 회장, 홍보대사 카피추(추대엽),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이 월동 난방비 전달식 촬영하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이 맞물려 이번 겨울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 더욱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이번 행사로 주변 이웃을 돌아보며,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사랑의열매는 취약 계층을 위한 월동 난방비로 사회복지시설 900여 개소에 총 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사랑의온도탑'을 상징으로 나눔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나눔온도가 1°C씩 올라가는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국 지회 최초 오픈러스 회원 및 형제·사위 가족 아너 탄생까지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인천으로 우뚝 섭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사그라뜨리는 뜨거운 나눔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 사랑의열매에서 전국 지회 최초 오픈러스 회원과 사위까지 함께한 가족 아너가 탄생한 것이다.

글강은진 사진인천사랑의열매



전국 지회 최초 오픈러스 회원이 된 기중현 아너(맨 왼쪽)의 기부금 약정식



남편과 함께 아너에 가입하며 부부 아너로 이름을 올린 기중현 아너의 아내 김여옥 여사(가운데)

오픈러스 아너 회원 탄생

인천 사랑의열매가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출범하며 굵직한 나눔 소식을 전해왔다. 먼저 2022년 11월 사랑의열매가 론칭한 아너 소사이어티 성장형 브랜드 오픈러스 회원 탄생 뉴스다. 주인공은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78호 회원 기중현 아너다. 기중현 아너는 아너 가입 후 나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계기로 10억 원을 약정하며 오픈러스에 가입했다. 이는 인천 1호이자 전국 지회 최초 기록이다. 이뿐 아니다. 기중현 아너의 부인 김여옥 여사도 1억 원을 완납하며 아너에 가입해 인천 지역 13번째 부부 아너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옥 여사는 “누구나 기부를 꿈꾸는데, 좋은 기회에 남편과 함께 나눔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기중현 아너는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인천 지역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들이 힘든 환경과 경제적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 2호 가족 아너는 누구?

형제는 물론 사위까지 아너에 가입한 가족이 탄생하며 인천 사랑의열매가 전국 최초 타이틀을 이어갔다. 2023년 12월 5일, 박명주정형외과병원에서 박명주 원장의 아너 가입식이 있었다. 박명주 원장의 장인은 인천 아너 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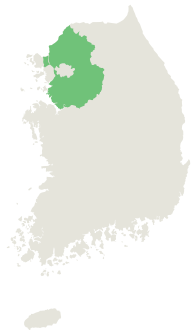
(주)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김의복 회장이다. 또 그의 처숙부는 인천 사랑의열매 아너 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주)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김의식 대표다. 김의복 회장과 김의식 대표는 인천 형제 아너 1호이며, 박명주 원장의 가입으로 인천에서 두 번째 가족 아너가 됐다. 또 사위까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것은 전국 최초다. 박명주 원장은 가입식에서 “장인어른과 처숙부님이 아너로서 꾸준히 기부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동참하게 되었다”면서,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전국 지회 최초로 오픈러스 인천 1호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기중현 아너님과 남편의 뜻에 동참해 부부 아너로 기부를 이어가신 김여옥 여사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박명주 원장님의 가입으로 인천에서 두 번째 가족 아너가 탄생해 인천의 기부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 앞으로 인천 사랑의열매도 지역사회에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어른과 처숙부님을 따라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부디 성금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175호 회원 박명주정형외과병원 박명주 원장



(왼쪽부터) (주)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김의복 회장, 박명주정형외과병원 박명주 원장,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 (주)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김의식 대표가 참석한 기부금 전달식



흑한기 취약 계층에 9억여 원 지원한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해 온기 모았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 사랑의열매가
‘2023 경기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로 9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내 어려운 이웃이 보다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글강은진 사진 경기 사랑의열매



화성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기념사진

계절특화,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

경기 사랑의열매는 경기도 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3 경기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통해 9억여 원을 지원했다. 경기 사랑의열매의 '경기 비발디(Vivaldi) 나눔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돌아오는 계절마다 이웃들이 도움의 손길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경기 사랑의열매 계절 특화 사업이다.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현 복지 체계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신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은 계절별 배분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 내 취약 계층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 학생에게 새 학기 필수 물품 등을 지원하는 새봄 새싹 나눔 •폭염 대비 시원한 여름나기 •추석 명절 지원을 통한 가을 사랑나눔 •한파 대비 따뜻한 겨울나기 등이 대표적이다.

따뜻한 겨울 9,000명 지원

2023년 11월 28일 화성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따뜻한 겨울나기'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 내 이웃들이 겨울을 보다 훈훈하게 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은 것이다. 이날 행사는 화성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김정희 관장,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박광재 대표를 포함한 6명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경기 사랑의열매 유소나



'2023 경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9,000명에게 9억여 원이 지원되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도내 곳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삶에 온기를 더해주며, 추운 날씨에도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회장

홍보대사,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 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원금 전달뿐 아니라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생필품과 영양식 꾸러미 등을 포장하며 힘을 보탤다. 또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주)넥스틴 임직원, 경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유소나 팬클럽 봉사 단체 '소공단' 회원과 지역 주민들은 김장 김치 지원을 위한 봉사 활동에도 참여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이번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남부 21개 시군과 협력해 경기도 내 이웃 9,000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동절기 생필품과 영양식 꾸러미, 김장 김치 등을 지원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회장은 “추운 날씨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던 김장 김치 지원봉사 활동



파주·남양주·고양·포천에 사랑의온도탑 제막 “경기북부 곳곳에서 희망과 사랑을 모읍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제히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도 총 4개 지역에 사랑의온도탑을 설치해 나눔온도 100℃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 중이다. 글이선희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파주시 금촌역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온도탑



남양주시청 앞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온도탑

가치 있는 경기북부를 위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2023년 12월 1일 남양주시청 광장을 시작으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경기북부를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기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경기북부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

파주시 사랑의온도탑

위치 금촌역광장

2023년 12월 6일 금촌역 광장에서 파주시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회장, 케이알(KR)타워 장건하 대표(파주 7호 아너)을 비롯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동참 의지를 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 모든 파주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 사랑의온도탑

위치 남양주시청앞광장

나눔을 통해 상상 그 이상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2023년에도 남양주시청 앞 광장에 사랑의온도탑이 세워졌다.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시의장, 기부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주)리산테크가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행사당일에만 1억 원 이상 모금되어 뜻깊은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고양시 사랑의온도탑

위치 일산문화광장

2023년 12월 4일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경기 사랑의열매 권인욱 회장,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이창원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진행했다. 사랑의온도탑에 불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 기부금 전달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포터즈 위촉식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많은 이가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 사랑의온도탑을 설치해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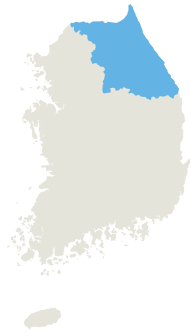
포천시 사랑의온도탑

위치 포천시청 정문

포천시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은 ‘제1회 포천시 이웃 돕기 기념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행사는 이웃 돕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정기 후원자 선발 및 감사패·표창 등 수여식, 성금 기탁식 후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이 개최됐다. 포천시청 정문에 사랑의온도탑을 설치해 이웃 돕기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제1회 포천시 이웃 돕기 기념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된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두 쌍의 부부 아너 탄생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나눔 온도가 올라갑니다!

두 쌍의 부부 아너가 탄생하며 성공적 출발을 알린 강원 사랑의열매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이웃사랑을 위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인 뜨거운 현장이었다.

글 강은진 사진 강원 사랑의열매



도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현장



(왼쪽부터) 유계식 강원 사랑의열매 회장, 김종태·권영옥 부부, 이경희 도복지보건국장



(왼쪽부터) 유계식 강원 사랑의열매 회장, 정의수 아너, 이경희 도복지보건국장

“나눔온도 100°C 달성을 위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김종태·권영옥 부부

“지역의 기업과 주민, 모두가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의수·이규란 부부

목표 달성 위해 마음모아

강원 사랑의열매가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2023년 12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대신해 이경희 도복지보건국장이 참석했으며,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도의회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위원장, 이영애 춘천시 복지국장,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이건설 회장,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한만우 부위원장, 춘천MBC 김종규 대표이사, G1방송 전종률 대표, 강원일보 최병수 전무이사, 강원도민일보 서청원 상무이사,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홍기중 회장, 강원여성경제인협회 송문숙 회장, 강원랜드, 서울에프엔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등 각계각층의 주요 기부자들이 참석해 2024나눔캠페인의 출범을 선언하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기원했다. 또한 출범식에서 강원랜드가 3억 5,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캠페인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서울에프엔비도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을 약정하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으며, 야생버섯산삼밴드에서 280여만 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에서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기부를 이어갔다.

부부 아너 두 쌍 탄생 겹경사

이번 출범식에서 두 쌍의 부부 아너가 동시에 가입하는 겹경사도 있었다. 주인공은 김종태·권영옥 부부와 정의수·이규란 부부. 출범식에서 함께 진행한 이들의 1억 원 약정 성금 전달식에서 (주)아모르컨벤션웨딩 대표이자 강원 아너 대표인 김종태 아너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단정바이오 대표 정의수 아너 역시 “우리의 나눔으로 지역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에서는 임기수 아너가 1,000만 원, 송호준 아너가 3,000만 원, 장덕범·홍경숙 춘천 부부 아너가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해 힘을 보탤다. 희망2024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강원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춘천 공지천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온도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웃사랑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



나눔명문기업 가입하며 나눔캠페인에 동참한 NH농협은행 세종본부 ‘언제나 따뜻한 세종의 나눔온도와 함께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NH농협은행 세종본부!
이번엔 나눔캠페인에 5,000만 원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에 앞장섰다. 글 강은진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NH농협은행
세종본부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세종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 NH농협은행 세종본부 김기관 본부장

희망2024나눔캠페인 제막식에서
5,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한
NH농협은행 세종본부



쌀 기부를 통해 지역 농가와 이웃들을 함께 돕는 상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NH농협은행 세종본부

출범식 통해 5,000만 원 기부

남다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 NH농협은행 세종본부. 먼저 나눔명문기업 가입 소식이다. NH농협은행 세종본부는 희망2024나눔캠페인 제막식을 통해 5,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이로써 세종시 나눔명문기업 19호로 이름을 올렸다. 남다른 나눔도 눈에 띈다. 2022년 5월 NH농협은행 세종본부는 세종시, 세종 사랑의열매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농협쌀 및 한국농협김치 밀키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NH농협은행 세종본부는 백미 10kg들이 1,000포, 묵은지 김치 밀키트 100개 등 3,0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기탁했다. NH농협은행 세종본부의 '1석 2조 나눔캠페인'이다. 지역의 쌀을 구입해 취약 계층이나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돕고, 사회 공헌 활동도 전개하는 것이다. 또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밀키트를 지원하는 등 지역은 물론 농민과 상생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다. '1석 2조 나눔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밀키트 제품은 한국농협김치에서 제작한 상품으로, 농협 최초로 지역 농협 우수 가공 제품을 연합해 만든 김치찌개·김치찌 제품과 백종원 요리 연구가의 비법 레시피로 100%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제육볶음으로 구성됐다.

꼼꼼히 챙기는 지역복지

NH농협은행 세종본부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을 챙기고 있다. 문화, 예술, 체육 등은 물론 세종시 복지 증진과 인재 육성 등에도 앞장서고 있다. 매년 지역 문화 예술을 위한 후원금과 체육 발전 후원금, 그리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조치원 복숭아축제, 세종시 빛축제 등을 후원하며 지역 문화 중흥에도 힘을 보탠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접 봉사에도 나선다. 2023년 7월 수해 피해로 세종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사랑의열매 임직원 및 운영위원 등은 상심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농가 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때 NH농협은행 세종본부 김기관 본부장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무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밭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리던 임직원들 모습은 당시 많은 세종시 지역 주민들에게 회자되기도 했다. 뜻깊은 나눔도 함께 이루어졌다. 2022년 1월 NH농협은행 세종본부로 새롭게 부임한 김기관 본부장은 바로 그 달에 나눔리더에 가입한 후 꾸준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해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김기관 본부장은 “NH농협은행 세종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양한 지역 봉사에 참여하는 임직원들.
사진은 2018년 연탄 나눔 봉사 당시 모습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249호(울산 122호)

김희자 연암LPG충전소 대표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는 데 동참하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온누리에 퍼지길 기원합니다."



전국 3265호(세종 28호)

김진동 (주)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이사

"모두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전국 3268호(부산 341호)

김태규 해디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나눔은 나의 행복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전국 3273호(울산 123호)

원경연 정원기계(주) 대표이사

"작은 나눔으로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국 3274호(서울 403호)

김명희 서울가정법원 위탁보호위원·대치자원봉사회장

"나눔은 기쁨이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전국 3275호(대구 231호)

故 최용식

"내 것만 내 것입니다."



전국 3276호(대구 232호)

김중태

"작은 기부지만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길 기원합니다."



전국 3277호(대구 233호)

오강정혜 고기버 커뮤니티 리더

"나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건강 및 공생을 위하여 함께 헌신합니다."



전국 3278호(대구 234호)

정정희 청한산업(주) 대표

"키움의 시작은 나눔으로부터"



전국 3279호(제주 142호)

고동윤 (주)제주막걸리 대표이사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전국 3283호(인천 173호)

배희철 유벨안과 원장

"앞으로 병원 직원들과 주변 단체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국 3285호(인천 175호)

박명주 박명주정형외과 원장

"장인어른과 처숙부님이 아너로서 꾸준히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동참했습니다. 저의 성금이 의미 있는 곳에 투명하게 잘 쓰이길 바랍니다."



전국 3287호(세종 29호)

서영석 (주)세종시 한글빵 대표

"일상의 나눔, 아름다운 선행,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국 3289호(전북 101호)

이기성 청운농원 대표

"나눔은 내 마음속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전국 3291호(서울 406호)

김영애

"나눔이란 행복의 기원입니다."



전국 3304호(제주 145호)

신승훈 동신일건기·성우해양 대표

"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입니다."



전국 3284호(인천 174호)

김여옥

"평소 기부에 관심을 가져오던 중 꾸준히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고 있는 남편의 영향으로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기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3286호(서울 404호)

장인수 파워플렉스 고문

"기부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전국 3288호(세종 30호)

신규철 (주)삼우나이프·세라믹 대표이사

"나눌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3290호(서울 405호)

한명섭 KDW웨딩 회장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전국 3297호(경남 155호)

서창욱 (주)인포스텍 대표이사

"사회를 통해 얻었고, 그 얻은 걸 나눌 수 있어 그저 감사합니다."



전국 3313호(울산 124호)

송해숙 (주)삼성울산비투비 대표이사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강원 이규란 서석중학교 교사 경기 유희숙 충남 오채무 성공메니아 대표, 전재임, 황수연 인셀덤SGM 대리점장, 최방순 (주)충보건설 대표 전북 익명
광주 김은자 (주)건축사무소 아도 건축사, 이미진 대명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방주희 (주)아이디어플랫폼 대표이사, 선기주 (주)엠알티 대표이사

중앙회

현대자동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쾌척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랑의열매에 성금 350억 원을 쾌척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2023년 12월 18일에 열린 전달식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김걸 사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3년부터 나눔캠페인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누적 성금은 총 3,94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성금은 ●휠체어 장애인 여행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전 기차 후원 등 교통 약자 이동 편의성 향상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노인 교통안전교육 등 안전한 사회 조성 ●생태 보전 및 어린이 환경 체험관 운영 등 환경 사업

●아동·청소년·대학생 인재 육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쓸 예정이다. 정의선 회장은 “장기간의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희망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도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희망2024나눔캠페인 특별 생방송 진행



사랑의열매가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다. 2023년 12월 7일에 전파를 탄 MBC 특별 생방송 <모두의 나눔>은 25년간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를 맡으며 한결같은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배우 채시라와 김대호 아나운서가 MC를 맡아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12월 12일에는 KBS 서울 여의도 본사와 전국 9개 지역 총국에서 성금 모금 행사를 마련하고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를 진행했다. 모금 행사에는 각계각층에서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나눔이 이어졌으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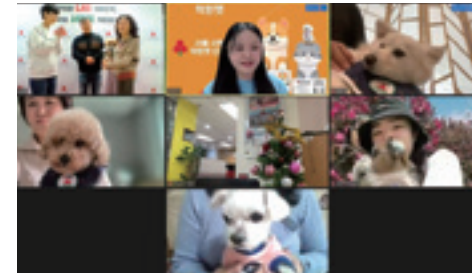
서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이웃 돕기 성금 전달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석용찬, 이하 메인비즈협회)가 연말을 맞아 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메인비즈협회는 2023년 11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금 활동을 펼쳤으며,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68명이 참여해 1억 2,361만 5,000원을 모금했다. 석용찬 회장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회원사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동참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착한펫 기부자, 온·오프라인으로 단체 가입식 진행



서울 사랑의열매가 착한펫에 가입한 기부자의 단체 가입식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가입식에는 똘비(서울 8호), 푸진(서울 11호), 로제(서울 12호), 망치(서울 13호), 모카(서울 14호)가 참여했다. 가입식 현장에 대표로 참석한 똘비의 보호자 조동진 씨는 “똘비가 사회의 일원으로 나눔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 가입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

BNK부산은행, 모바일 앱 기부 참여 지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자사 모바일 앱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나눔캠페인 모바일 모금함’을 운영 중이다. 휴대폰을 소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나눔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성금은 위기 가정, 사회적 약자 돌봄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교통공사·BNK부산은행,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맞손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와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이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하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영도구와 사상구에 이어 사하구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5월까지 취약 계층 15가구와 경로당 5개소의 노후 주택을 수리할 예정이다.

대구

2023대구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날 행사 개최



대구 사랑의열매가 2023년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고액 기부자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너 회원 대표이던 신흥식 대표와 신입 대표로 추대된 성철화 대표의 이취임식과 신규 회원 4인의 가입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 5억 원 상당 물품 기부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본부장 홍문석)이 대구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 의류 등 5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은 물품 기탁에 이어 사랑 나눔 김장 김치 행사를 진행하며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개최



광주 사랑의열매가 2023년 12월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당일 현장에서는 기아오트랜드, NH농협 광주지역본부, 나눔테크, 정원장학복지재단 등이 캠페인의 첫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 아너 회원들, 성탄절 맞아 산타 변신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성탄절을 맞아 깜짝 산타로 변신해 이일성로원(원장 손은진)을 찾아 선물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접 포장한 1,000여만 원 상당의 겨울 이불 60세트를 전하고,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더불어 아너 회원 성금을 완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핸드 프린팅 행사도 개최했다.

인천

포에이시스템 주식회사,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기부 동참



건물 도장, 방수, 하자 보수 전문 업체 포에이시스템 주식회사(대표 김소중)가 인천 나눔명문기업 41호로 가입했다. 개인적으로 나눔을 이어오던 김소중 대표는 체계적인 기부 확대를 위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그는 “벤처기업으로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우리도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며 가입 소감을 전했다.

2023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에 약5억 원 배분



인천 사랑의열매는 소규모 복지 기관 이용자와 취약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배분금을 전달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외 6개 배분 협력 기관을 통해 소규모 복지 기관 229개소, 취약 계층 3,822가구에 5억 1,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원금은 높은 난방비와 한파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월동용품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다.

대전

로쏘(주)성심당, 기부 문화 확산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대전 지역 대표 기업인 로쏘(주)성심당(대표 임영진)이 고객을 대상으로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홍보하고, 따뜻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전 사랑의열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심당은 62일간의 캠페인 동안 자사가 판매하는 빵에 사랑의열매 나눔 픽을 꽂아 고객에게 나눔의 의미를 전달한다.

대전도시공사, 나눔명문기업 대전 20호 가입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나눔명문기업 대전 20호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설립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국영 사장은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NH농협 울산지역본부,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진행



NH농협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창현)가 '2023년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사랑앓 김장 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김장 김치 800상자를 전달했다. 임직원 봉사자 160여 명과 (사)고향주부모임 울산시지회 회원들이 참여해 약 1,8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갔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를 사용해 우리 농산물 소비에 도움을 주었다.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복지시설 지원금 2,500만 원 전달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이 북구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지원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 중 2,000만 원은 정신 재활 시설 마음봄에서 생활하는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사회 적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예정이며, 500만 원은 북구 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 130여 명을 위한 충전식 손난로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다.

경기북부

일산운정벚엘교회,
저소득층 의료비 1,000만 원 후원



일산운정벚엘교회가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고양시 일산병원, 새빛안과병원을 통해 고양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일산운정벚엘교회는 벚엘교회 유지재단을 설립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탈북민 단체 후원, 의료 선교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연천군 ESG나눔기업
인증패 전달식 진행



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연천군 지역사회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기부를 실천한 참한식품 등 4개 회사에 'ESG 나눔 기업 인증패'를 전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신 기업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나눔기업 인증을 통해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

뮤지컬 배우 유소나,
경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



경기 사랑의열매가 뮤지컬 배우 유소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유소나는 2023년 9월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6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음원 및 콘서트 수익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온 그는 "기부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개최,
322억 원 모금 목표



경기 사랑의열매가 2023년 12월 1일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집중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경기 사랑의열매의 나눔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이던 307억 원보다 15억 원 증액한 322억 원이다. 캠페인 성금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강원

2023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
5,000가구에 난방비 지원



강원 사랑의열매가 2023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으로 도내 에너지 취약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했다. 급상승한 난방비로 부담을 느끼는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5,000가구에 각각 10만 원씩 총 5억 원을 배분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도민의 마음을 모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NH농협 강원지역본부,
에너지 취약 계층 위한 성금 기탁



NH농협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고명환)가 강원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8,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치솟는 물가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 계층 1,000가구에 각각 8만 원씩 난방비로 지원됐다. 고명환 본부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속적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금천동 시온성교회, 나눔캠페인 참여로 이웃사랑 실천



금천동 시온성교회(목사 고갑순)가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시온성교회는 2020년 이래 매년 쌀과 현금 등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고갑순 목사는 “코로나19 이후로 성도들과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실천하는 믿음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 임직원, 아동에게 성탄절 선물 전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센터장 전동재)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꽃동네천사의집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직접 포장한 선물과 함께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동재 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북 아너소사이어티, 11년 만에 100호 달성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전북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전북 사랑의열매가 100호 아너 회원을 맞이했다. 2012년 1호 아너 회원 가입 이후 11년 만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실천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 임직원, 이웃 돕기 성금 기탁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공장장 최송주) 임직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성금 4,182만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기부를 시작해 11년째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최송주 공장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에게 다스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남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실시



충남 사랑의열매가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다양한 기관·단체의 기부자들이 함께해 뜨거운 나눔 열기가 현장에 가득 찼다. 이날 성공매니아 오재무 대표가 1억 원을 기탁하며 충남 121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현대오일뱅크, NH농협 충남지역본부 등이 따뜻한 기부 행렬을 이어갔다.

시티문화재단, 장애아동 위한 시티놀이터 19호점 개소



시티건설이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시티문화재단(이사장 윤지연)이 ‘시티놀이터’ 19호점을 개소했다. 시티놀이터 19호점은 지역사회 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촉진과 함께 안전한 놀이·문화 활동이 가능한 무장애 놀이터로 조성했다.

전남

김창숙부띠끄, 2억 원 상당 의류 전달



여성 의류업체 김창숙부띠끄(회장 하봉화)가 2억 원 상당의 의류를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의류 3,836점은 전남 지역 내 취약 계층 여성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되었다. 1972년에 오픈한 김창숙부띠끄는 전국적으로 가정의 달, 겨울 등을 맞아 수억 원대 의류와 생활품 기부물 이어가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제철(주) 순천공장, 사랑의김장 김치 지원



현대제철(주) 순천공장이 사랑의 김장 김치 지원 사업을 위한 성금 1,100만 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현대제철(주) 순천공장은 1995년부터 매년 동절기 김장 김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총 2억 3,000만 원 이상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이웃과 상생하기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

경북 신규 나눔리더 6인, 단체 가입식 진행



경북 사랑의열매가 2023년 11월 21일 신규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가입자는 신도물산 김점곤 대표, 학가 산김치 우국한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 최윤이 특별부회장, (주)수정기업 손영옥 대표, (주)에코플러스 김태아 대표, 인카금융보험 VIP총괄 영남본부 김선희 이사 6명이다.

경북도의회 초우회, 이웃사랑 성금 전달



경북도의회 초선 의원 모임인 초우회(회장 박규탁)가 연말을 맞아 200만 원의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박규탁 회장은 “초우회 회원들이 모은 소중한 성금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내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우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

강석영·김채원 부부, 결혼식 축의금 기부하며 나눔리더 가입



2023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린 강석영·김채원 부부가 축의금 일부를 기부하며 제주 나눔리더 145·146호로 가입했다. 성금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우리의 처음을 기부와 함께해 더욱 특별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마음을 맞춰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손성희 부부와 반려견 미롱, 제주 착한펫 동참



2023년 12월 11일 제주 사랑의열매가 제주 착한펫 3호로 가입한 이지훈·손성희 부부와 반려견 ‘미롱’의 가입식을 진행하고, 착한펫 회원증을 수여했다. 부부는 “미롱이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주변분들과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2023 경남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 및 회원의 날 개최



경남 사랑의열매가 2023년 12월 12일 경남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 및 회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남의 아너 소사이어티를 대표해 11년간 아너 클럽을 이끌어온 오춘길 대표와 신임 대표로 선출된 한철수 대표의 이취임식도 함께 실시했다.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은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아너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화인테크놀로지,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나눔 동참



(주)화인테크놀로지(대표이사 서영옥)가 이웃 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고액 기부 기업 모임인 나눔명문기업 경남 15호로 가입했다. 경남 134호 아너 회원인 서영옥 대표는 “기업 차원에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

(주)켄트로닉스,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 기탁



(주)켄트로닉스(대표이사 김응수)가 지역사회를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응수 대표이사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켄트로닉스는 화학업종을 비롯해 가전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세종 지역 대표 중견 기업이다.

고운동물병원, 꾸준한 기부 실천으로 사랑 나눔



고운동물병원(원장 송서영)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참여했다. 고운동물병원은 착한가게 기부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희망2020나눔캠페인부터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매년 1,000만 원을 기탁하고 있다. 이 같은 꾸준한 나눔으로 2023 제10회 사랑의열매 대상 희망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상한 이상해씨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